

작품 내용

제 목	문장에도 문패가 있다
내 용	나는 예전에는 저작권을 조금 멀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법 조항 속에 들어 있는 딱딱한 단어, 창작자와 회사와 계약서 사이에서나 오가는 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쓴 짧은 글 한 줄이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그 글은 대단한 문장도 아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둔, 아주 사소한 문장이었다. 특별한 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꿀 만한 의견이 담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내 이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자 마음 한쪽이 비어 버린 듯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니까 누군가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짧은 문장 하나쯤은 별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니 내가 속상했던 이유는 문장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문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간 때문이었다. 그날의 기분, 그 문장을 고르기까지 지웠던 말들,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국 올렸던 마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워진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글과 사진을 볼 때 조금 천천히 보게 되었다. 예쁜 그림을 저장할 때도, 좋은 문장을 인용할 때도, 무료 이미지라고 적힌 파일을 사용할 때도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이걸 써도 되는 것인지, 출처를 적어야 하는지, 원래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금고 속에 넣어 잠그자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 앞에 작은 문패를 달아 주는 일에 가깝다. “이 글은 누군가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 음악은 누군가가 여러 번 고치고 다시 만든 소리입니다.” 그렇게 알려 주는 작은 표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창작물 사이를 지나간다.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듣고, 카페에서 사진을 보고, 학교와 회사에서 자료를 만들고, SNS에서 문장을 나눈다. 그래서 저작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무언가를 보고 쓰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생활 예절에 가깝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일은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창작자의 마음에는 작은 흠집이 남고, 세상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쯤은 없어도 된다”는 습관이 조금씩 쌓인다. 나는 이제 좋은 문장을 만나면 그냥 가져오기보다 먼저 멈춘다. 출처를 찾고,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만든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창작자를 계속 창작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글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글도 소중하다. 내 사진에 이름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그림에도 이름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지 않기 위한 낮은 울타리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앉아 문장을 고르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만든다. 그 사람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존중은 묻고, 밝히고, 허락받는 일이다. 창작자의 이름을 지켜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하루를 지켜 주는 가장 조용한 방법일지도 모른다.